



世界養鷄產業動向 (10)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
(서울대 농대 여정수 제공)

—네델란드—

네델란드에서 매 2년마다 개최되는 국제 축산 전시회(Duch International Trade Fair for Intensive Animal Production)가 세계양계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과 세계 제일의 양계 산업국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1978년 11월 15일~ 17일까지 4일간 네델란드의 서남부에 있는 우트레흐트(Utrecht)에서 열렸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시회에 대한 관심은 지난 10년동안 크게 증가하여 1976년에는 주로 유럽과 미국의 198개 유수한 가금회사들이 새로운 발명품과 상품들을 출품시켜서 이들 전시품을 진열하는 장소만 하여도 3,630평(11,750M²)에 달하였고 관람자의 수만도 25,000여명에 달하여 1974년에 비하여 관람객수는 34%증가 증가한 수치였다. 이렇게 큰 규모로서 전세계 축산업계에 호응을 얻을수 있는 전시회는 네델란드가 오랫동안 제란과 닭고기 생산의 중심지로서 세계에서 첫번째가는 양계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세계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나라의 양계산업이 세계적인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1977년에 제란 수출량이 25억개로서 세계 양계산업이 거의 발전되지 못하였던 1959년 당시 33억개의 세계적인 수출량기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3~4년동안 최근에 매년 2억개 정도의 수출량이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곧 1959년의 기록을 깨뜨릴 날을 목표로 더욱 매진하고 있다. 닭고기 수출에서도 1977년에 214,000 TON이 넘었는데 이 수치는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닭고기 수출국이었던 미국 보다는 40,000 TON이 많은 수치였으며 1977년 양계산물 수출은 거의 15억길드(3,000억 원)에 달하였었다. 네델란드의 양계산물의 수출량은 서독이 80-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 더 많은 수출을 위하여 중동산 유국이나 EC(유럽공동체)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과 양계기술제휴로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모로코,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등에서는 연간 3,000만수 이상의

병아리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나라의 유리 브리드, 비그다츠만등 세계적인 굴지의 양계회사들은 회사의 영리 못지않게 세계 양계산업의 선봉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계란생산은 1977년에 53억개로서 1976년에 비하여 26% 증가하였고 Broiler 는 400,000 TON으로 1976년에 비하여 3%가 증가하였다. 오리와 칠면조의 생산은 비교적 저조하여 1977년에 칠면조고기 16,000 TON, 오리고기 6,000TON 으로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는 통계를 보이고 있다.

네델란드의 양계생산물 소비량은 생산에 비하여 많지 않고 연간 국민 1인당 계란 186개 닭고기 7.3kg의 소비수치를 보이고 있다.

네델란드는 점점 심화되는 세계시장의 경쟁에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하여 가장 중요한 세계의 양계산업 중심지로서 위치를 고수할 수 있는나 하는 비결에 대하여 이나라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주요 골자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노틀담항구가 유럽 각지에 신속하게 네델란드의 양계생산물을 수송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항구이고, 둘째로 빈틈없는 양계사료 분야의 연구, 셋째로 실제 사양가들에 대한 폭 넓은 지원과 자금 지원 대책을 위한 탁월하고 조직적인 체계, 넷째로 강력한 양계산물의 수출정책 다섯째로 고도화된 기술 개발교육과 연구, 여섯째로 계란과 닭고기의 시장조직인 행정부에 설치된 Commodity Board 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일 본 —

1976년에 비하여 1977년에 Broiler 생산은 7%가 증가하였고 1978년에는 5%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칠면조, 오리고기의 생산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현상

을 보이고 있다.

일본 국민들의 기호성은 생선에서 닭고기나 쇠고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양계 생산물의 가공처리에 대한 강력한 정부지원과 더불어 국내의 양계 생산물의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서 1977년 닭고기 수입은 1978년 보다도 8%가 증가하였는데 이 수입은 주로 미국으로부터 수입되었으며 미국에서 일본에 수출한 닭고기는 1976년 24,489TON에서 1977년에 32,650TON으로 36%가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위생적인 냉동 닭고기를 요구하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만족할만한 품질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계산물 수출경쟁국가로 볼 수 있는 브라질등 남미 여러 나라들은 생산물 가격면에서 미국과 수출경쟁을 할 수 없고 유럽의 선진 양계산업국에서는 지역적으로 일본 수출이 어려움으로 미국의 거의 독점 수출이 이뤄지는 현실정이다.

지난 몇년동안 계란의 플라스틱롤과 항생물질 검출 문제로 야기되었던 계란 소비량의 감소가 예상되었던 것은 생각보다 빨리 완화되어 계속적인 계란의 소비량 증가가 기대되고 있지만 가정에서 식품으로 이용되는 계란 소비량은 줄어들고 있으며 그 반면에 과자류나 제빵류에 사용되는 계란이 증가되고 있어 일본 전체의 산란계 산업도 점차적으로 약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77년 계란 수입량은 13억개로서 세계의 첫번째인 서독의 계란 수입량 보다는 훨씬 뒤지지만 세계에서 두번째로 많은 계란을 수입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일본국민의 소비경향이 계란의 가공품으로 액상 난황이나 long egg (10개정도의 난황과 난백을 하나로 뭉쳐서 난각대신에 초코렐이나 다른 원료로 겉을 싸것) 등으로 수입을 요구하고 있어 난가공업의 발전이 미국등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